

「운영진」의 궁녀들 - 절대 권력에 저항한 예외적 존재*

정 규 식**

차 례

- | | |
|-------------------------|--------------------|
| 1. 문제 제기 | 3. 잠재성의 발현과 저항의 의미 |
| 2. 궁녀들의 존재 방식과 안평대군의 통치 | 1) 잠재성의 발현 |
| 1) 목적 없는 존재로 존재하기 | 2) 저항의 의미 |
| 2) 예외 상태를 통한 통치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운영진」의 궁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당대의 궁녀를 표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수성궁이라는 특수 공간, 안평대군이라는 절대 권력,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 등과 연결되어 궁녀로서의 전형성을 탈피하여 자신들의 존재론적 의미를 심각하게 발산하는 인물들이다.

궁녀들은 백성에서 궁녀, 궁녀에서 수성궁의 궁녀, 수성궁에서 다시 서궁과 남궁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목적은 가지지 않은 것을 목적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부교수

으로 하는 존재'로 위치하는데 이는 '예외 상태'를 통한 통치를 추구한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운영전』의 궁녀들은 배제와 포함의 관계에 의한 예외 상태의 존재로서 '살아남아 있지 않을' 잠재성을 발현하여 권력의 작동 방식과 연관되는 인간(생명)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진 인물임을 밝혔다.

살아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 발현을 통한 그들의 문제 제기는 안평대군, 수성궁, 조선이라는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권력이 작동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항은, 목적 없이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 즉 영원히 예외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작동 방식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 문제 제기는 시대 초월적이며 큰 울림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궁녀들의 저항이 지니는 궁극적 의미가 바로 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운영전』, 궁녀, 통치, 배제와 포함, 예외 상태, 잠재성, 저항

1. 문제 제기

『운영전』의 궁녀들은 어떤 존재일까? 본고의 목적은 이를 해명하는 것이다. 『운영전』은 우리 소설사에서 특정 집단이 하나의 인물 유형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운영전』에는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단지 당대의 궁녀를 표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영과 자란으로 대표되는 『운영전』의 궁녀들은 수성궁이라는 특수 공간, 안평대군이라는 절대 권력, 김진사라

는 젊은 선비 등과 연결되어 전형성의 탈피는 물론 심각한 존재론적 의미를 발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본고는 이를 위해, 궁녀들의 존재론적 의미를 주로 궁녀들과 안평대군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 나아가 그들이 보여준 저항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이들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지배와 피지배 혹은 주종 관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궁녀들의 존재론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이를 분석하고 거기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예외 상태’와 ‘잠재성’ 등 서구 사상가들의 개념어들을 적절히 원용하고자 한다.¹⁾

기존 논의²⁾에서도 『운영전』의 궁녀들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 그 결과 죽음을 불사하는 저항적 인물³⁾, 강한 자의식을 지닌 원녀(怨女)⁴⁾, 갈등 조절자로서의 면모⁵⁾, 억압기제의 작동으로 인한 분열적

1) 푸코는 그의 저서 『성의 역사』 1(이규현 옮김, 나남, 1990)에서 주권권력과 생명 권력의 차이를 말하면서 통치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후, 『안전, 영토, 인구』(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에서 ‘통치’ 혹은 ‘통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에서 ‘예외 상태’, ‘잠재성’ 등을 설명한 후, 후속작 『예외 상태』(김향 옮김, 새물결, 2009)에서 이를 구체화하였다.

2) 『운영전』에 대한 선행 논의는 성현경(『<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0)과 양승민(『<운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등의 논의에 잘 제시되어 있다.

3) 변형민, 『김형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 특집 : 이조소설에 나타난 저항정신—홍길동전, 홍계월전, 운영전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어문』 1집,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1976, 519-521쪽.

4)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운영전>의 사상 기반에 관한 시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275-278쪽.

주체의 모습⁶⁾ 등으로 분석하기도 하였고 절대 권력에 맞서는 집단성⁷⁾, 궁녀들의 연대의식⁸⁾, 자매애적 관계로 뭉쳐진 존재⁹⁾,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¹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최근 논의 가운데는, 궁녀들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운영전』의 남성 집단은 수직적 권력 관계인 반면 여성 집단(궁녀)은 수평적 경쟁 관계인데 이 두 관계에 있던 각각의 인물, 즉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에 빠지게 되자 경쟁 관계였던 궁녀들이 운영을 자신의 집단에서 밀어내고자 했다고 해석한 논의도 있었다.¹¹⁾ 이러한 해석은 자매애적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이해와 협조, 화합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점철되어 갈등과 경쟁을 내포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호혜적인 것이 아님에 근거하고 있다.¹²⁾

기존 논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이나 자란 같은 특정 궁녀가 아니라, 궁녀 전체의 성격을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통해 논증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저항적 인물이나 자의식, 갈등 조정자, 분열적 주체 등은 작품의 심층적 분석에 기반으로 하지 않았거나 운영과

-
- 5) 엄기영, 「〈운영전〉과 갈등상황의 조정자로서의 자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91쪽.
 - 6) 김지혜, 「분열적 주체와 〈운영전〉속 운영의 죽음」, 『민족문화논총』 68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145-152쪽.
 - 7) 정규식, 「〈운영전〉에 형상화된 삶의 권력과 죽음의 권리」, 『고소설연구』 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52-59쪽.
 - 8) 조현설,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주체성의 의미」, 『국문학연구』 19집, 국문학회, 2009, 13-17쪽.
 - 9) 차(배)옥덕, 「여성 자매애에 대한 일고찰—〈운영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집,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000, 81-86쪽.; 박현주, 「〈운영전〉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49-53쪽.
 - 10) 문범두, 「〈운영전〉 궁녀집단의 사회적 성격과 작가의식」, 『한민족문학』 7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143-152쪽.
 - 11) 김민정,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집단의 관계 양상과 서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59집,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 12) 김민정, 위의 논문, 210-212쪽.

자란에 집중하였거나 서사의 특정 부분과 연관되는 측면이 강하며 자매 애적 관계, 연대의식, 집단지성 등은 궁녀 사이의 관계이거나 집단화된 무리의 일반적 성향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운영전』의 궁녀들은 백성에서 궁녀, 궁녀에서 수성궁의 궁녀, 수성궁에서 다시 서궁과 남궁의 궁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위치하는 존재들인데 이러한 존재 방식은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전』의 궁녀들의 존재론적 의미는 이러한 서사적 맥락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여 『운영전』의 궁녀들을 목적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 상태의 존재로서 ‘무엇이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성 발현을 통해 권력의 작동 방식과 연관되는 인간(생명)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진 인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2. 궁녀들의 존재 방식과 안평대군의 통치

1) 목적 없는 존재로 존재하기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궁녀들의 위치성을 바라보면,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궁녀들의 존재 방식이며, 둘째는 예외 상태¹³⁾를 통한 통치를 추구하는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이 그것이다. 이 둘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궁녀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운영전』 궁녀들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푸코의 통치 이론이 도움이 된다. 푸코는 통치자와 복종자의 전면적 의존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복종자는 그저 통치자가 바라는 복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맹

13) ‘예외 상태’는 아감벤이 제안한 용어로서, 권력자가 호모 사케르(homo sacer, 추방되거나 죽여도 무방한 존재들) 같은 존재들을 위치시키는 독특한 지배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목적으로 복종할 뿐이며 나아가 그들은 자유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통치자)가 자신에게 명령해줄기를 갈망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부단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는 의지만을 지향하는 존재로 남는 것이다.¹⁴⁾

이를 바탕으로 『운영진』의 궁녀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목적은 가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대군은 궁녀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어여쁜 자 10명을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중략)… 과연 5년도 채 안 되어 10명 모두가 재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궁에 돌아오면 항상 우리를 안전(眼前)에 앉히고 시를 짓게 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시의 고하(高下)를 차례대로 매기고 상과 벌을 내려서 우리를 격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탁월한 시상은 비록 대군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음률의 청아함과 구법이 완숙함은 성당 시인들의 울타리를 엿볼 만했습니다. 소옥(小玉), 부용(芙蓉), 비경(飛瓊), 비취(翡翠), 옥녀(玉女), 금련(金蓮), 은섬(銀蟾), 자란(紫鸞), 보련(寶蓮), 운영(雲英)이었는데 제가 바로 운영입니다.

대군은 대체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궁궐 안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군은 매일 문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예를 닦으면서도 일찍이 우리가 그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궁궐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¹⁵⁾

14) 미셸 푸코(2011), 앞의 책, 252-257쪽.

15) ‘於是 宮女中 擇其年少美容者十人 教之 …(中略)… 大君入 則使妾等 不離眼前 作詩斥正 第其高下 用賞罰 以爲勸獎之地 其卓犖之氣像 縱不及於大君 而音律之清雅 句法之婉熟 亦可以窺盛唐詩人之藩籬也 十人名則 小玉 芙蓉 飛瓊 翡翠 玉女 金蓮 銀蟾 紫鸞 寶蓮 雲英 雲英即妾也 大君皆甚撫恤 尙畜宮內 使不得與人對語 日與文士盃酒戰藝 而未嘗以妾等 一番相近者 蓋慮外人之或知也’(264면/103-104면) 원문과 번역문은 이상구 역주(『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를 참

위 인용문에는 수성궁의 궁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정보들이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인용문의 내용은 안평대군이 수성궁에서 바깥세상과 차단된 상태로 적절한 상벌을 내려 궁녀들의 시작(詩作) 역량 제고를 도모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인용문에는 이를 위한 통치의 주체와 대상, 장소, 방식 등이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지점 하나가 누락되어 있다. 궁녀들의 시작 능력을 제고하는 근원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궁녀들의 시작 능력 향상은 표면적 목적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감춰져 있다. 안평대군이 당대의 문인들과 시를 읽고 감상하고 평하기 위함인지, 안평대군 혼자 궁녀들의 시를 음미하여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기 위함인지, 시를 매개로 궁녀들과 시적 담론을 펼치고자 함인지 알 수가 없다. 궁궐 밖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궁녀들이 시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안평대군이 수성궁에서 궁녀들을 우수한 시인으로 만들고자 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기존 논의 가운데는 시문에 대한 자부와 과시에서 찾은 경우도 있었다.¹⁶⁾ 그러나 이미 당대 최고의 시문 능력을 갖춘 안평대군이 굳이 궁녀들을 통해 그것을 대신하고자 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남는다. 또한 궁녀들의 시를 통해 자신의 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안평대군과 궁녀 사이의 시 품평이 주로 안평대군의 평가와 가르침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궁극적 목적이라 하기 어렵다. 결국, 궁녀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우수한 시를 짓고 뛰어난 시인이 되더라도 그 시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안평대군이 수성궁을 통해 양성한 시인과 시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는 미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고하였으며 각각의 인용문은 (원문 인용면/번역문 인용면)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16) 엄기영, 앞의 논문, 389-390쪽.

이처럼 수성궁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궁녀들의 시작 행위는 뚜렷한 목적을 찾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궁녀들은 결국, 목적 없는 행위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목적 없는 행위를 하는 존재만큼 허무한 존재가 또 있을까? 궁녀들의 이러한 존재성은 아래의 인용문에도 잘 드러난다.

오래도록 별궁에 갇히어 늘 외로운 그림자를 슬퍼하고 마주하는 것은 등불이요, 하는 일이란 거문고 타며 노래하는 것뿐이었다. 온갖 꽃들은 아름다움을 머금은 채 웃고, 두 마리 제비는 날개를 나란히 하며 노니는 데, 박명한 우리는 모두 깊은 궁궐에 갇히어 꽃과 제비들을 볼 때마다 봄을 슬퍼할 뿐이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¹⁷⁾

저희들이 이 궁중에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 마음을 굳게 지키다가 말라 죽는 길뿐입니다.¹⁸⁾

저희들은 감격스러움과 두려움에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고 있을 따름입니다.¹⁹⁾

인용문은 차례로 자란, 은섬, 비취가 한 말이다. 이들의 말은 수성궁의 모든 궁녀를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궁녀들이 어떤 심정으로 수성궁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난다. 외로운 그림자를 보며 슬퍼하고, 바라볼 대상이라곤 등불뿐이며 글 짓고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한다. 따라서 수성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컸다. 탈출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그럴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안평대군의 보살핌과 위엄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었지만 안평

17) ‘久閉離宮 長弔隻影 所對者 燈燭而已 所爲者 絃歌而已 百花含葩而笑 雙燕交翼而戲 薄命妾等 同銷深宮 覽物懷春 情思如何’(280면/138-139면)

18) ‘唯畏主君之威 固守此心 以爲枯死’(287면/151면)

19) ‘妾等憾懼 惟事文墨絃歌而已’(287면/151면)

대군에게 받은 은혜와 그의 위엄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아래의 인용문은 그들의 존재 방식을 더욱 공허하게 만든다.

너희 아홉은 문장과 재주가 나날이 성장하여 훗날 아름다운 시문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텐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할 테니 슬픔을 금할 수가 없구나.²⁰⁾

인용문은 김진사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것을 이룰 길이 없으니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운영이 비경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다. 운영의 이 말에는 궁녀들의 시작 능력 향상의 궁극적 목적이 드러나 있는 듯하다. 그러나 면밀하게 분석하면 그렇지 않다.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아름다운 시문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聳動一世)’라는 부분이다. 이 말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지은 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지라도 그에 따른 어떤 찬사나 영광도 그들이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안평대군을 통해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수성궁에서 지속되어 왔던 방식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시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그 시를 자신의 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긴 시간을 수성궁에서 생활했음에도 스스로도 자신들의 시작 능력 향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자신이 지은 시를 자기 것이라 할 수 없고 시에 뒤따르는 찬사나 영광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시와 음악을 하면서 말라 죽는 것’ 뿐이라는 은섭의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수성궁 궁녀들의 존재성을 정확히 언표한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들이다. 결국 궁녀들의 최종 목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 ‘九人之文章才華 日就月長(‘將’의 오기) 他日 佳篇麗什 聳動一世 而妾不及見矣 是以悲不能禁’(277면/131면)

2) 예외 상태를 통한 통치

궁녀들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목적 없는 존재로 존재하도록 한 인물은 다름 아닌 안평대군이다. 그러므로 궁녀들의 위치성은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운영전』에 등장하는 궁녀들의 성격은 궁녀들 사이나 김진사와의 관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성궁과 궁녀들의 주인이 바로 안평대군이며 그가 그들을 그렇게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²¹⁾

인용문은 『운영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 인용문은, 어느 날 안평대군이 술에 취해 들어와 궁녀들에게 한 말이다. 안평대군은 궁녀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모가 아리따운 10명을 가려 뽑아 수성궁에서 시문(詩文)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5~6년이 흐른 후, 궁녀들의 재주가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금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처음 수성궁에 들었을 때는, 하늘이 남녀에 차별을 두고 재주를 내리지 않았으므로 너희들로 열심히 노력하면 높은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궁녀들이 높은 경지에 이르자 궁밖의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거나 궁 밖 사람과 접촉만 하더라도 죽일 것이라 한다. 궁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활용한 안평대군의 강력한 통치 방식이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방식은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너희들 열 사람이 한 곳에 같이 있어서 학업에 전일하지 못하니, 마땅히 다섯 사람을 나누어 서궁에 거처하게 하라.²²⁾

21)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女知名 其罪亦死’(264면/104면)

인용문은 무녀가 궁을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 안평대군이 수성궁 궁녀들에게 내린 명이다. 어느 날 무녀가 김진사의 편지를 운영에게 전하기 위해 궁궐로 왔고, 궁 사람들은 무녀의 궁 출입을 이상하게 여겼다. 안평대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누구의 메신저로 왔는지는 모르더라도 수성궁의 누군가가 궁 밖의 누군가와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에 따른 조치가 바로, 10명의 궁녀를 5명씩 나눠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배치한 것이다. 그는 궁녀→10명→5명의 방법으로 궁녀들을 분리시켰다. 궁녀들 가운데 10명을 가려 뽑고 다시 5명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안평대군이 수성궁의 궁녀 10명을 각각 5명씩 분리하여 서궁과 남궁으로 배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이 지니는 심층적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안평대군은 그들이 목적 없음을 공론화하여 이에 저항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이 목적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는 일종의 ‘예외 상태’를 통한 통치를 펼치게 된다. 조르조 아감벤은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별거벗은 생명을 분리해내며, 그것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동시에 그것과의 포괄적 배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라 했다.²³⁾ 그에 의하면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지와 적의 관계가 아니라 별거벗은 존재²⁴⁾와 정치적 존재, 배제와 포함 관계 등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와 포함 관계는 근대 이후 모든 사회의 일반적 정치 혹은 통치 행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아감벤이 말하는 배제와 포함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회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수용소 같은 예외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

22) ‘汝等十人 同在一室 業不專一 當分五人 置之西宮’(274면/124면)

23) 조르조 아감벤(2008), 앞의 책, 45쪽.

24) 아감벤은 ‘별거벗은 생명’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 했는데, 그들은 당시의 법질서로부터 예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더라도 법적인 제재나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조르조 아감벤(2008), 앞의 책, 45-47쪽.

는 예외란 일종의 배제이지만 단순한 배제가 아니다. 예외란 ‘끄집어 내어진 ex-captum(밖에서 포획된 ex-capere)’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권은 무언가를 배제시킴으로써만 그것을 포함하는 극단적 형태로 예외와 관계 맺는데 이를 ‘예외 관계’라 한다.²⁵⁾ 이것이 바로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을 예외 상태로 독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외부 사람이 궁녀의 존재를 알아서도 안 되고 외부와의 접촉도 할 수 없다는 수성궁의 규율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그들을 보통의 궁녀들로부터 배제시키고 이 배제의 규율을 철저히 지킬 때에만 수성궁의 궁녀로 포함시킴으로써 그들과 예외 관계를 맺게 된다.

앞서 살폈듯, 궁녀들은 이러한 예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억압해야 했다. 즉, 스스로를 다른 존재들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대군이 인정하는 수성궁의 궁녀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10명에서 5명으로 분리하여 배치한 것은 배제와 포함의 관계를 이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궁녀들을 극단적 방식으로 통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외 상태를 통한 통치는 특수한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법과 제도로부터 분리시켜 그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규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수성궁에서 다시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하여 배치한 것은 특수 공간을 통한 예외 상태의 강화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집단화된 무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중적 예외 상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분리하면 힘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다름 아닌, 목적을 가질 수 없음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저항하는 힘이다.

그러나 『운영전』의 궁녀들은 이미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 흩어져 있다고 하여 욕망을 거세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긍정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안평대군으로부터 받은

25) 조르조 아감벤(2008), 앞의 책, 60-61쪽.

특별한 은혜와 중세적 질서라는 현실적 벽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품었던 욕망들을 스스로 억누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나아가 안평대군에 대한 도리를 저버릴 수 없으므로 인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운영전』의 궁녀들은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으로부터 더 깊이 가들수록 사회적 존재 및 욕망의 존재로서의 인간적 가치를 더더욱 고민하고 사유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바로 안평대군 스스로가 이점을 몰각했다는 데 있다.

흥미 있는 것은 궁녀들을 이런 존재로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안평대군 자신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안평대군은 5~6년 전 어린 시절의 그들을 통제했던 방식 그대로 통제했던 것이다. 그 시간 동안 특수한 교육을 받은 궁녀들은 자의식 충만한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에 분리한다고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며 가둔다고 가뉘지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중적 예외 상태는 그들을 더욱 절박하게 몰아갔다. 이중적 예외 상태에 놓인 그들의 심정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시위 같은 상태였는데, 김진사의 등장으로 시위에 걸려있던 화살은 목표를 향해 날카롭게 발사된다. 주지하듯, 김진사의 등장으로 예외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외부인이 궁녀를 알아서도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배제의 규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후의 전개는 충분히 예견된다. 당연히 포함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지 않은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예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안평대군의 통치 행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수성궁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3. 잠재성의 발현과 저항의 의미

1) 잠재성의 발현

애정 전기에서 자유연애는 주요한 테마이다. 『최치원』,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하생기우전』 등의 주인공들의 지향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운영전』에서 말하는 자유연애가 기존 작품과 다른 점은 중세적 질서가 양산하는 모순과 갈등의 출발점²⁶⁾에 자유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전』은 당대 최고 권력자 안평대군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연애의 문제를 예각화하여 안평대군 자체보다는 중세적 이념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 이를 부정²⁷⁾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당대의 지배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연애에 대한 자유, 나아가 인간의 정욕을 직접적으로 긍정하는 차원의 연애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들과 확연히 변별된다.

『운영전』이 기존 작품들과 다르게 연애보다 자유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는, 이 작품에서의 애정 장애가 부모나 가문의 반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 권력자에 의해 발생하였고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저항이 안평대군과 궁녀라는 대립 구도를 통해, 지배-피지배나 주-종 관계로 포섭되지 않는, 예외 상태라는 독특한 관계 설정에서 발현되는데 이에서 비롯되는 서사적 긴장은 단순히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세적 질서 하에서 궁녀들의 이러한 인식과 행위를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의 무게감을 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사회·역사적 장을 소거하여 개인의 사회화를

26)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91쪽.

27)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64쪽.

28) 『운영전』의 안평대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견해가 다양하다. 작품의 가장 바깥 액자에 드러나는 운영·김진사와 유영 사이의 대화에서는 안평대군이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최근 논의에서도 이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박희병, 『<운영전> 작자 고증』, 『국문학연구』 42호, 국문학회, 2020, 55-62쪽 참조) 그러나 안평대군의 인물 성격은 그것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내부 액자에 등장하는 안평대군은 작가의 창작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정적 인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박탈하고 예외 상태로 만들어 목적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특정한 사회·역사적 장에서 태어나 살아가게 되며 그 장에서 특정한 주체로 형성되고 변화해 간다. 이러한 주체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두 방향의 힘을 끝없이 엮어감으로써 특정한 주체로 성장해 간다.²⁹⁾ 개인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망, 즉 집단화된 사회 속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예외 상태에 놓인 수성궁의 궁녀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에 무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항을 통해 수성궁의 질서를 해체하기까지 한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으로 귀하고 천한 것의 구별이 없이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깊은 궁궐에 갇힌 이후 그림자를 벗어나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중략)…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사지로 보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 아래서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³⁰⁾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두루 서궁에까지 이르렀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앞드려 바라건대, 사지에 빨리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³¹⁾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이 없다고 하십니까? 김생은 우리 세대에 가장 단아한 선비입니다. 그를 내당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주군의 일이었으며, 운영에게 벼루를 받들라 한 것은 주군의 명이었습니다. 운영은 오래도록 깊은 궁궐에 갇히어 가을날과 봄꽃에 매번 성정을 잃었고 오동잎이 떨어지는 밤비에는 애가 끊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중략)… 오늘의 제 죽음 또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29) 이정우·양일모, 『근대적 개인의 탄생 : 일제하 소설들에서의 '주체'』, 『시대와 철학』 17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130쪽.

30) '男女情欲 稟於陰陽 無貴無賤 人皆有之 一閉深宮 形單影隻 …(中略)… 今無所犯之罪 而欲置之死地 妾等黃泉之下 死不瞑目矣'(287면/150-151면)

31) '今不洗之惡名 偏及西宮 生不如死矣 惟伏願 速就死地矣'(287면/151면)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잇게 해 주십시오.³²⁾

공초(供招) 장면에서 은섬, 비취, 자란이 한 말이다. 이외 옥녀, 소옥 등도 비슷한 말을 했다. 운영 역시 죽음으로 죄를 받겠다고 했다. 목적 없는 예외 상태의 존재들이 보여주기 어려운 모습이다. 예외 상태에 놓인 존재들은 사회 체제 내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그것을 설정한 주권자에 의해 선택된 특수한 규율의 적용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공초 장면에서 보여주는 궁녀들의 모습은 지극히 문제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저항이 다름 아닌 아감벤이 말하는 ‘잠재성(potenza)’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잠재성을 ‘무엇이 아닐 수 있는 역량’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능력이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감벤은 이를 ‘무엇이 아닐 수 있는 역량(일종의 비잠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은 글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감벤에게 잠재성은 비잠재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있는 잠재성’과 ‘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들인데 이 때문에 그들은 주권자의 결정 가능성 자체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수성궁의 궁녀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은 시문을 짓는 것이다. 외부인이 알아서도 외부인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배제의 규율을 철저히 내면화하면서 시문 짓는 일에만 열중한다면 안평대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성궁 궁녀에 포함될 수 있었다. 앞서 말한 배제와 포함의 관계를 통한 예외 상태이다. 하지만 그들은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 문제를 기점으로 예외 상태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즉, 외부인

32) ‘主君何使雲英 獨無雲雨之情乎 金生乃當世之端士也 引入內堂 主君之事也 命雲英奉硯 主君之令也 雲英久鎖深宮 秋月春花 每傷性情 梧桐夜雨 幾斷寸腸 …(中略)… 今日之死 死亦榮矣 伏願主君 以妾之身續雲英之命矣’(287-288면/152면)

33) 조르조 아감벤(2008), 앞의 책, 115-117쪽.

과의 접촉 금지라는 금기를 위반하게 되어 배제의 규율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안평대군이 이를 알게 된 이상,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안평대군이 설정한) 수성궁의 궁녀가 아닐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 뿐이다. 예외 상태의 존재들은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의 관계를 폐기함으로써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³⁴⁾ 그렇게 해야만 예외 상태 속에서 법을 생명과 연결시키던 장치를 작동 중지시켜 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그간 공초 장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운영전』의 공초 장면은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 서사 못지않게 『운영전』의 백미이다.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그들의 격렬한 저항은 이전의 어떤 작품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장면이다. 특히 중세적 질서 체계 내에서 특정 집단이 절대 권력을 향해 외치는 저항의 목소리는 충분히 문제적이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이 장면의 심각성에 침잠된 이러한 무게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감이 있다.

잠재성을, 무엇일 잠재성과 무엇이지 않을 잠재성 양 측면에서, 존재가 스스로를 주권적으로 정초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면³⁶⁾ 공초 장면에서 궁녀들이 보여주는 잠재성은 바로 ‘살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의 발현이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잠재성을 발현하기 이전에 먼저 안평대군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에 의해 포함과 배제 관계의 예외 상태에 놓인 궁녀들은, 목적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배제의 규율을 위반한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주권적으로 정초하고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면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를 잘 드러낸다.

34) 강선형,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4집, 새한철학회, 2014, 144쪽.

35) 조르조 아감벤(2009), 앞의 책, 166쪽.

36) 조르조 아감벤(2008), 앞의 책, 113-114쪽.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하여 두 사람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³⁷⁾

자란의 이 말은 안평대군에게,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면서 시 짓고 거문고 타면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수성공의 규율, 즉 배제와 포함의 관계에 있는 예외 상태를 해체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는 앞서 살핀 수성공 궁녀가 아닐 수 있는 잠재성의 발현이다. 자란의 말대로라면 운영은 수성공의 궁녀가 아닌 여염집 여인이 된다. 수성공의 궁녀가 아닐 수 있는 잠재성에는 여염집 여인일 수 있는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염집 여인이 된다는 것은 남녀의 애정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목적 없는 존재로 살아남기’에서 ‘목적 지닌 존재로 살아가기’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자란의 말은 예외 상태의 해체 주체를 안평대군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단지 자란의 간절한 외침일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신들이 해체의 주체가 되는 것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큰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중세적 질서 하에서 허락되지 않을 목적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약한 궁녀의 처절한 외침과 조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궁녀들에게 목적을 지향하는 존재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오직 하나, ‘살아남아 있지 않을’ 잠재성의 실현밖에 없는 것이다.³⁸⁾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운영은 자결하고 만

37) ‘妾之愚意 一使金生得見雲英 以解兩人之怨結 則主君之積善 莫大乎此’(287면/152면)

38) 정규식(앞의 논문, 59쪽)은 공초 장면에서 등장하는 궁녀들의 죽음 호명에 주목하여, 이를 안평대군의 죽일 권력에 대응하는 그들의 죽음의 권리라고 하였는데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원리나 구조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 이로써 수성공의 복잡한 애정 문제는 일단락된다. 『운영전』의 비극성이 극도로 고조되는 지점이다.

2) 저항의 의미

그렇다면 『운영전』의 궁녀들은 예외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재성을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들은 궁녀이면서 여성이며 절대 권력에 예속된 당대 사회의 소수자 혹은 약자들이다. 거기다가 수성공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갇힌 존재들이다. 영원히 예외 상태로 남아 기존 사회 체제 속에 내면화되고 고착될 수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그들은 예외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었지만 다른 궁녀들과 다른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며, 시문 창작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킨 존재들이다.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시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창출하는 존재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안평대군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세적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예외 상태를 해체할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궁녀들을 배제와 포함의 관계를 통해 예외 상태로 설정한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통치 방식이 당대의 지배 질서 하에서 가능한 방식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이를 몰각했다. 푸코는 집을 통치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가장이 집을 통치하더라도 개개인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그는 통치의 본질은 영토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복합체인데, 이는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통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다.³⁹⁾ 푸코가 말하는 통치의 핵심은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 개인의 목적[행복]을 위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사물을 개인의 재산 증식, 출생, 죽음 등과 연관되게 배치하면서 목표를 제시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⁴⁰⁾ 하지만 안평대군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수성공 자체도 그러하거나와 남궁과 서궁은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목적 없음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와 관리를 위한 공간이었다. 사물을 개인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면서 생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생명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안평대군이 통치하고자 했던 대상은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신분상으로는 궁녀였지만 시문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킨 특수한 존재들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역량으로 세계와 호응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배제와 포함 관계의 예외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통치한 안평대군의 방식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저항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 본성을 긍정하고 자유 연애를 외치면서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수성공의 해체를 이끌어낸 궁녀들의 모습에서 인간해방에 대한 소수자들의 강렬한 열망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해는 배제와 포함 관계를 통한 예외 상태라는 궁녀들의 독특한 위치성이 반영되지 않은 감이 있다.

39) 미셸 푸코(2011), 앞의 책, 148-149쪽.

40) 푸코가 말하는 사물의 재배치는 주로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푸코는 근대 이후의 정치가 의학이나 통계학 등의 발전에 힘입어 출생률이나 사망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이는 칼로 상징되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의 생살여탈권을 행사하는 근대 이전의 방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푸코는 이를 'bio-pouvoir'(생명관리정치, 생체통제권력, 생체-권력 등으로 번역됨)라고 명명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푸코에게 사물은 생명과 연관되는 개인의 목적[행복]을 위해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에 관해서는 『성의 역사 1권-지식의 의지』(1990, 145-170쪽), 『안전, 영토, 인구』(2011, 175-191쪽) 등을 참조할만하다.

또한 그들의 저항에서 ‘무엇이 아닐 수 있는’ 잠재성의 발현을 포착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바닷물이 마르고 돌이 녹아 없어져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며, 땅이 늙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한은 삭이기 어렵습니다. …(중략)… 옅드려 바라건대, 존경하는 그대가 이 글을 거두어 세상에 전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되, 경박한 사람들의 입에 함부로 전해져 노리갯감으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⁴¹⁾

인용문은 운영 및 김진사가 유영과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부분이다. 이 대화는 작품의 끝부분에 등장하는데 필자는 여기에서 그들의 저항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용문의 말은, 일차적으로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가 훗날 호사가들의 이야깃거리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운영의 죽음, 그리고 안평대군에게 맞섰던 궁녀들의 처절한 저항 등이 후세 사람들에게 휘발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어떤 의미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즉, 수성궁의 일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닌 의미 있는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예외 상태로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절대 권력에 저항하기 살아남아 있지 않을 잠재성을 발현한 궁녀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감벤은 예외 상태가 규칙화될 때 사회 내부에 수용소 같은 공간 배치가 지속화되어 그것이 규범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²⁾ 이 말은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진 예외 상태가 사회 질서 안으로 들어와 기존의 규칙과 결합하여 사회적 내면화가 이뤄지면, 원래는 경계에 머물거나

41) ‘海枯石爛 此情不泯 地老天荒 此恨難消 …(中略)…伏願尊君 俯拾此藁 傳之不朽 而勿浪傳於浮薄之口 以爲戲翫之資 幸甚’(290면/158면)

42) 조르조 아감벤(2008), 앞의 책, 319-321쪽.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변하여 차별과 억압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⁴³⁾

궁녀들의 저항이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은 시대의 새로운 윤리, 즉 기존의 질서와 주권의 정당성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⁴⁴⁾이며 일종의 저항 전략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보여준 살아남아 있지 않을 잠재성의 발현은 예외 상태에서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임을 강력하게 언표하는 것이다. 살 가치가 없는 존재를 살게 하려는 권력은 지속되기 어렵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저항은 살아남아 있지 않을 잠재성을 발현하는 존재를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 되며 이런 방식의 통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잠재성을 최후의 저항 전략으로 활용한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칭병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이때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 해로하는 것보다 좋은 계획이 없으리라.⁴⁵⁾

인용문은 공초가 있기 전, 궁궐을 탈출하여 김진사와 도망하려는 운영에게, 자란이 한 말이다. 운영이 꿈꾸고 자란이 바라는 소박한 희망이다.

43)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찾아온 비정규직은,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한 존재로서 IMF라는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규범화하는 제도까지 정비되어 사회 곳곳에서 일상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 처음에 느꼈던 생소함과 낯섦도, 그리고 그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4) 김지혜, 『아감벤의 잠재성(potenza) 사유와 현대미술』, 『미학·예술학연구』, 50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7, 118쪽.

45) ‘娘子若年貌衰謝 則主君之恩眷 漸弛矣 觀其事勢 稱病久臥 則必許還鄉矣 當此之時 與郎君携手同歸 與之偕老 計莫大焉.’(284면/145면)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렇지만 희망을 품어 보는 것이다. 자란의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운영에게 한 것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자란 자신은 물론 수성궁의 모든 궁녀를 대변한 말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을, 탁월한 능력으로 뛰어 넘거나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한계 상황과 직면하는 대상을 만날 때 일종의 숭고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존재를 단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무모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는 행위가 바로 현실 속에 표출하기 어려운 내면의 나를 대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시시포스(Sisyphus)의 심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나 시시포스가 될 수는 없다. 자란의 말은 당장은 실현되지 않을 바람이지만 언젠가는 실현되어 할 지향이다. 자란에게는 실현 가능성보다 실현되어야 할 지향이 더 소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위치한 시대와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기 때문이다.

예외 상태가 유지되고 규범화되어 그것이 일상화된다면 수성궁의 궁녀는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에 대해 질문하고 저항해야 한다. 나아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만 살 가치가 없는 자신 같은 존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란을 비롯한 궁녀들의 처절한 저항이 단지 작품 속에 그려진 안평대군의 수성궁과 조선이라는 전근대적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살 가치가 없는 존재, 즉 영원히 예외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재생산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 궁녀들의 강력한 메시지는 인간 해방이나 자유를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여 국가와 정치, 법과 제도 등이 작동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과 연관되는 인간(생명)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필자는 궁녀들의 저항이 지니는 궁극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중세 사회의 여

성 목소리⁴⁶⁾로 형상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작동되는 권력 장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궁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당대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4. 결론

『운영전』의 궁녀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문제는 『운영전』해석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그간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본고는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단지 당대의 궁녀를 표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수성궁이라는 특수 공간, 안평대군이라는 절대 권력,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 등과 연결되어 당대의 궁녀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전형성을 탈피하였고 나아가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 등을 강조하면서 권력에 대항한 인물들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중세의 여성으로서, 수성궁의 궁녀로서,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진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했다. 이는 예외 상태를 통한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에 기인한 것인데 예외 상태에 놓인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의 발현뿐이었다. 이를 통해 절대 권력 안평대군에 저항했던 것이다.

중세적 질서 하의 궁녀들은 궁 밖의 존재들과는 다른, 복합적 차이성을 지닌다. 특히 『운영전』의 궁녀들은 궁, 여성, 궁녀, 나아가 수성궁이라는 특수 공간에 위치한 예외적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을 위한

46)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규율이 적용되었고 그것에 합당해야만 수성궁의 궁녀로 남을 수 있었다. 특히 10명을 다시 5명으로 나누어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 배치한 안평대군의 조치는 배제와 포함 관계를 이중적으로 적용하여 예외 상태를 지속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점에서 궁녀들의 저항은 간단히 해석될 문제가 아니다.

살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 발현을 통한 그들의 문제 제기는 안평대군, 수성궁, 조선이라는 시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항은, 목적 없이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 즉 영원히 예외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 문제 제기는 시대 초월적이며 큰 울림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난민이나 이민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 예외 상태에 놓인 많은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규범화, 일상화된 현대적 예외 상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상태를 해체하여 존재의 이유, 즉 그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수 있는 상황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쪽에서도 그것을 해체할 주체로 나서지 못하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이다. 수성궁의 궁녀들과 안평대군이 유지했던 팽팽한 긴장 관계와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의 궁녀들이 보여준 잠재성의 발현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운영전』이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작품에서 보여준 비극적 파국이 재현되지 않도록 권력과 정치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하며 나아가 권력의 오작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함을 강력하게 언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서구 이론으로 우리 작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운영전』에 등장하는 궁녀들의 성격과 행위, 즉 목숨을 걸고 안

평대군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작품 해석의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그것을 궁녀들의 존재 방식과 안평대군의 통치 방식을 바탕으로, 목적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로 남게 되는 예외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한 권력 장치에 저항하는 방식을 잠재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풀었다는 점, 이를 매개로 궁녀들의 성격과 그들의 저항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형,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4집, 새한철학회, 2014, 129-148쪽.
- 김민정,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집단의 관계 양상과 서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59집,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183-215쪽.
- 김지혜, 『분열적 주체와 <운영전>속 운영의 죽음』, 『민족문화논총』 68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141-170쪽.
- 김지혜, 『아감벤의 잠재성(potenza) 사유와 현대미술』, 『미학·예술학연구』, 50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7, 99-134쪽.
- 문범두, 『<운영전> 궁녀집단의 사회적 성격과 작가의식』, 『한민족문학』 7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135-169쪽.
- 미셸 푸코 지음·오토르망 율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 미셸 푸코 지음·이규현 율김, 『성의 역사』 1, 나남, 1990.
- 박현주, 『<운영전>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변형민, 『김형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 특집 : 이조소설에 나타난 저항정신-홍길동전, 홍계월전, 운영전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1집,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1976, 507-523쪽.
- 박희병, 『<운영전> 작가 고증』, 『국문학연구』 42호, 국문학회, 2020, 5-69쪽.
- 성현경,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0.
- 양승민, 『<운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 엄기영, 『<운영전>과 갈등상황의 조정자로서의 자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79-397쪽.
-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쪽.
- 이정우·양일모, 「근대적 개인의 탄생 : 일제하 소설들에서의 ‘주체’」, 『시대와 철학』 17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105-136쪽.
- 정규식, 「〈운영전〉에 형상화된 삶의 권력과 죽음의 권리」, 『고소설연구』 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41-70쪽.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71-103쪽.
-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운영전〉의 사상 기반에 관한 시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61-292쪽.
-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조르조 아감벤·김항 옮김, 『예외 상태』, 새물결, 2009.
- 조현설,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주체성의 의미」, 『국문학연구』 19집, 국문학회, 2009, 5-26쪽.
- 차(배)옥덕, 「여성 자매애에 대한 일고찰—〈운영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집,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000, 73-89쪽.

<Abstract>

The court ladies in 『un-yeong-jeon』
- Exceptional beings who resist absolute
power

Chung, Ku-Si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what kind of beings the court ladies in 『un-yeong-jeon』. They do not just represent the court ladies of the time. They are connected with the special space of Su-seong-gung, the absolute power of An-pyeong-dae-gun, and a young scholar named Kim Jin-sa, who break away from their typicality as court ladies and radiate serious ontological meaning.

They are positioned as ‘existences with no purpose’ in the special environment, from the people to the court lady, from the court lady to the court lady of Su-seong-gung, and from Su-seong-gung again to the Seo-gung and Nam-gung.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ruling method of An-pyeong-dae-gun, which is to rule through the ‘state of exception’. In this paper, paying attention to this, the court ladies in 『un-yeong-jeon』 express the potentiality of ‘not to remain alive’ as the existence of a state of exception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xclusion and inclusion, and the ontological meaning of human (life) related to the way power works. He revealed that he was a person who posed heavy questions about

The issue of potential manifestation that may not remain alive is

* Dong-a University

not limited to a specific time and space. Wherever power is at work, it is meaningful. Their resistance, therefore, shows how they can counter the workings of power in order to prevent any further reproduction of beings that have to live without purpose, that is, beings that have to remain in a state of exception forever. Therefore, raising the question that risked their life is timeless and can be read with great resonance. This paper believes that this is the ultimate meaning of the resistance of court ladies.

Key Words: 「un-yeong-jeon」, the court lady, governance, exclusion and inclusion, state of exception, potentiality, resistance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07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4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